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식 오후 2시 진도군 고군면 회동공연장

&lt;10일&gt;

▲제 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식=오후 2시 진도군 고군면 회동공연장. 진도북놀이·국악대공연·씻김굿·바닷길 한마당(농악)·7080콘서트 등, 12일까지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협판식=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북구 흥사단회관 3층 강당 <11일>

▲제 3회 탐진강 은어축제 개막식=오후 8시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둔치공원. '은어아 놀자! 탐진강에서'라는 주제로 15일까지, 다슬기·재첩잡기, 은어 맨손 잡기 등 체험행사와 은어친구 뱀장어릴레이 게임·은어박사 OX퀴즈 등 참여프로그램, 한여름밤의 매직쇼·대북공연·밸리댄스·탐진콘서트·은어가요제 등 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

▲제 7회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개막식=오후 7시 여수 진남체육공원. 외국인 350명 포함, 국내외 청소년 6만여명 참석 예정. 청소년 대상 해상 투어 및 영어토론회, 청소년 가요제 및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13일까지.

▲제 10회 무안백련대축제=오후 3시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면적 10만평) 행사장. 15일까지. 벌마임 공연·마안마당극 '풀바풀비'·포크 콘서트 '연꽃이 있는 풍경' 등.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밤 8시20분~50분 진도군 가계공연장. 해상불꽃놀이, 8시50분부터 10시30분 락콘서트.

▲제 12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김의정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세계

차문화'라는 주제로 강연.

▲제 498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공연=10일(목) 오후 8시 순천 상사댐 광장. 시립예술단 등 초청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보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팬스메탈 그룹전=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도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흥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오흥씨가 제작한 대형 앤리베이션 작품 전시.

▲무진서각 전통각자전=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제 7회 무등산 사랑전=11일부터 31일까지 자마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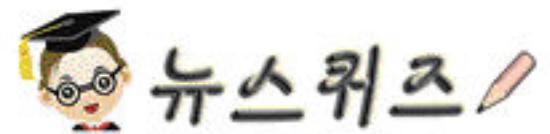


▲제국신문 창간(1898)

▲일제, 동아·조선일보 강제 폐간(1940)

▲표준시 변경,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30분 앞당김(1961)

▲미국 첫 흑인 합참의장에 콜린 파월 임명(1989)



24. '아시아 훌런킹'으로 불리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기 최근 한·일 개인통산 400홈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 투런 훌런에 이어 9회말 끝내기 2점포(시즌 33회·통산 401호)를 뽐어냈습니다.

이 선수의 400호 훌런은 일본의 오사카하루(정치)와 미국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앙커스)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이승엽 ②장종훈 ③김봉연 ④양준혁

##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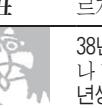
8월 10일(음 7월 17일 칠)



36년생 오전은 편안하지만 오후는 바빠지리라. 48년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변사람을 성의껏 도우면 자연스레 하리라. 60년생 꼭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있다. 72년생 분주한 하루로. 84년생 행운의 숫자 : 21, 25



37년생 주변이 변화하니 대안을 마련하라. 49년생 직업직장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도우라. 73년생 차근차근 전진하려면 큰 발전이 있을 수다. 8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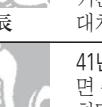
38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니 준비하고 있으 있다. 50년생 광주하고 노래하나 마음이 무겁다. 62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말하고 놀고하라. 74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꽃하니 해가 뜨리며 미리미리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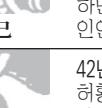
39년생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니 생각대로 행하라. 51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기만 하구나. 63년생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감사하며 지내자. 75년생 뜻밖의 재난을 만나도 대비하고 있으면 큰 손해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7, 40



40년생 상대의 고민을 도우면 자신도 평안하다. 52년생 친구들을 잘 펴보라. 고민이 있을 수 있다. 64년생 현실적인 일에 집착하라. 고민이 커진다. 76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들어오던 복이 달아나니 원만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41년생 귀친자와의 돈거래는 신용상실의 실마리다. 53년생 양보 하면 쉬운 일이 고집으로 인해서 꼬일 수 있다. 65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7년생 외로운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 38



42년생 새별들의 화재가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4년생 예술 활동을 일에 벗어지 마라. 66년생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78년생 억울한 일에 생겨도 담담하게 미리 저절로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7, 29



43년생 시비는 무례한 언동에서 발생하니 생각하고 말하라. 55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유흥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67년생 좋은 고달픈 마음은 평안하니 가족을 둘러보라.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5



44년생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 기쁜 날이다. 56년생 말다툼만 피하면 평화스런 하루로다. 68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울린다. 80년생 솔로는 외출하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26



45년생 어른이 안 보인다. 두루두루 살펴보라. 57년생 속단은 이르나 노력이 더 필요하다. 69년생 어려운 내부에서 겪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으니 솔직히 차려야 하리보다. 81년생 잔치 집에 가지만 마음은 무겁다. 행운의 숫자 : 01, 35



46년생 진행하는 일을 한번 더 살펴보라. 58년생 아내를 살펴보라 대고개가 있을 수 있다. 70년생 아들이 고민한다. 고민을 들어보라. 82년생 부모님을 찾아뵙고 건강을 살펴보라. 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47년생 외출할 때 차량을 주의하면 소화에 그리리라. 59년생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lt;31&gt; 세상은 넓고 배우지감은 많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싱글족'이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월룸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이 그 뚜렷한 증거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전체 결혼 수와 비교, 50%라는 잠정적인 추산으로 볼 때 '과연 결혼을 꼭 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전히 대부분의 남녀들은 이른바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면 '결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츰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급해진 남녀는 급히 주위사람들에게 SOS를 보내 결혼상대 소개를 요청하거나 초등학교 동창부터, 옛날 선배·지나간 옛사랑 등 예전부터의 친분이 흐려진 지인들에게 은근히 연락과 탐색을 시도한다.

## 넓게 만나보고 깊이 판단하라!

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다 간다면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든 꽃처럼 가엾고 안타까운 경우가 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처럼 넓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해 보고 탐색하고 판단, 나와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주위에서 만난 오로지 한 사람만을 사랑해 결혼에 끌어인 두 사람 이 죽는 날 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예는 결코 흔하지 않은 동

화 같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저 멀리까지 눈을 둘리고 손을 뻗쳐 서로가 짹이기를 원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점들이 결혼 후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할지 ▲나의 어떤 점들은 상대의 결혼생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러나 점들을 내가 스스로 견디거나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나 자신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보여주어 상대 또한 나에 대해 그런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깊이, 그리고 넓게 자신과 맞대어 봐야 하겠다.

당당하게 널리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를 파악해 보고 서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당한 싱글'로 살아가는 것도 좋다.

좋은 방법이다. 결코 언제까지나 싱글이고 싶지는 않은 미혼들이여, 넓게 만나보고 깊이 판단하라!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lt;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gt;

## 침공을 유발한 세칸벌림

제3보(31~51)

白 김영수 5단

&lt;빛고을교사회&gt;

黑 박광주 5단

&lt;포스코&gt;

국면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간직한 채 일단은 서로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참고도> 긴장을 견디지 못한 박광주 5단이 흑 35로 불어 먼저 칼을 빼 들었다. 이곳은 모양의 급소로 이 수를 피하기 위해 정석은 백이 39에 지키도록 한다. 쌔우꾼인 김영수 5단도 기다렸다는 듯이 백 36으로 젖어 일단 좌변을 확보하고 본다. 백 44는 흑이 46으로 막아주면 48에 치받아 선수를 잡겠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amp;G 전남본부

## 바둑 소식

## 中왕시, 亞 TV바둑 결승 선착

중국의 왕시 5단이 지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장쉬 5단에게 23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왕시 5단은 이창호 9단·일본의 하네 나오기 9단전 승자와 11일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가린다.

84년생으로 이번 대회 최연소 출전 기사인 왕시 5단은 대회 첫 출전 만에 결승에 진출 한 뒤 전기 우승자인 장쉬 9단을 격침시키는 저력을 선보였다. 침착하면서도 두터운 기풍의 소유자인 왕시 5단은 지난 2004년 제9회 삼성화재배 준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강호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니하오 쟁구워

&lt;426&gt;

##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해요

A: 請詞 从这儿到购物中心不远?

B: 是的, 很近。从这儿到购物中心只要10分钟。

B: 不太远, 走路十分钟就到。

B: 在哪里? 我们去购物中心。

B: 下牛五路转到。

B: 请告诉我怎么走。

A: 路口右转, 然后直走, 到达购物中心。

B: 好的, 我们走。

A: 路口右转, 然后直走, 到达购物中心。